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우리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암컷 사마귀는 포악하기로 유명하다. 교미 중 수컷을 살해하기 때문이다. 대체 왜 암컷 사마귀는 이처럼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걸까. 암컷에게 양분을 제공해 더 건강한 자손을 얻기 위한 수컷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설, 교미 시간을 오래 끌어 건강한 자손을 얻으려는 암컷의 의도적 살해라는 설 등이 있다.

어떤 설이 맞든 암컷사마귀의 살해 행위는 종의 번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참혹하지만 진화적 본능의 산물인 것이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종은 종족 번식을 최우선의 과제로 진화해 왔다. 진화생물학자에 따르면 특정 생물종의 성공 여부는 생존과 번식이다.

한데 인류는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적어도 겉으론 그렇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간이란 종은 아이를 덜 낳는다.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출산율 저하 역시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나라는 어디일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25명이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25명이란 얘기다. 이는 세계 224개국 중 219위이며 OECD 가입국 중에선 꼴찌이다. 인구 대체수준 즉,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올 6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인이 2750년이면 자연 멸종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령화, 저출산의 대명사인 일본보다도 빠르게 한국인이 멸종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 결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1.19명의 자녀만을 출산하고, 북한과의 통일이나 해외로부터의 이주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먼 미래를 극히 단순화된 변수만을 사용해 예측했기에 그 신뢰도 또한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엄중하다.

왜 한국인은 자칫 멸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걸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보육 및 교육 환경의 열악성도 문제다. 하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년층의 암울한 현실일 것이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참혹하다. 올 6월 현재 10%를 넘었다. 고용률도 40%대다. 10명 중 4명만 일을 하고 있다. 팔팔한 청춘 대부분이 놀고 있다.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해도 태반이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다.

별다른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커 갈 수 있다면 누가 출산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지만 불안한 세상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신의 후손을 그곳에 던져 놓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이를 돌볼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종족 번식을 포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후손에게 남루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복지가 개선된다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특정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가령,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아시아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이 많을 수가 없다.

반면, 서구에서는 비혼 출산이 비교적 많다. 이것이 아시아 여성의 출산율이 서구 여성의 그것보다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적 차이가 출산율 변수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든 종은 번식과 생존을 지상의 과제로 여긴다는 점이다. 암컷사마귀처럼 살해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본능이다. 한데, 그 본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청년층이 후손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누구나 아이를 낳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세상. 그것은 꿈일까. 설사 꿈이라 해도 그 꿈을 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은 어느 순간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마치 공룡처럼.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내 안의 부처가 당신 안의 신에게 예배합니다

김 법 성
광주원음방송 사장

요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합니다. 현지 가이드를 만나 호텔로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현지어는 그 나라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아는 단어도 당연히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나면 최소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알고 떠납니다.

오래전, 동남아 여행 때의 일입니다. 현지 가이드에게 현지어를 여러가지 배웠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나마스떼(na-maste)"라는 인사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살짝 숙이며 "나마스떼"라고 인사를 합니다. 가이드는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도와 네팔, 티벳의 인사말 '나마스떼'에 깊은 뜻이 있다는걸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 호남지역 종교인 영성모임에 참석해서입니다. 보성에 있는 대원사 현장스님이 이 모임의 대표로 있어 지난해에는 대원사에 갔습니다. 아실암 옆 계곡물에 목욕도 하고 티벳 불교 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때 현장스님이 손부채를 선물로 주었는데 부채에 '내 안의 부처가 당신 안의 신에게 예배합니다'라는 글귀를 써주시며 인도의 인사말인 "나마스떼"가 가지고 있는 뜻도 설명해주었습니다.

인도는 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 있는 신이 300이 넘고, 이름 없는 신까지 합치면 3000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일억의 신들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모시는 신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마스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모시는 신을 존중하며 그분에게 머리 숙여 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믿든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결국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두 손 모아 인사를 합니다.

이렇듯 종교는 인간 내면의 영성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참 나를 찾게 되면 그 안에는 맑고 고요하며 한점 티끌도 머물지 못하는 근본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근본 마음을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해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천록(天祿)이 나오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심이 생겨 그것이 끊어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맑은 마음도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意)의 육근(六根)동작으로 수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과거의 업으로부터 현재까지 쌓인 욕심과 분별심들이 서로의 간격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성은 그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였고 부처님은 "사생일신(四生一身)이므로 만물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님은 모두가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도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는 부처(참마음)를 찾는 것이고 네 안의 깊은 곳에 간직한 신(하나님)을 인정하며 교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안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인연들에게 마음 모아 "나마스떼"를 속으로 음미하며 "내 안에 깃든 성스러운 신성이 당신 안에 깃든 성스러운 신성께 경배합니다"라고 인사를 해 봅시다. 마음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나마스떼."

기 고

어려운 이들의 '보금자리 주택'

박 광 원
광주시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면서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런 주거시설은 원시시대에는 피난 공간이었으나,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큰 재테크 상품으로 변해 도시의 어느 지역 어느 주거에서 생활하느냐가 빈부의 척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거가 재테크 수단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일수록 평생 내 집을 갖기는 어렵고, 대다수가 환경이 취약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에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도 광주시의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따라 1991년부터 보금자리 주택 공급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7개 단지에 6182호를 건립했고, 민선6기에 들어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2개 단지 1200세대와 보금자리주택 3개지구에 1200세대를 건설하고 있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정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공공임대 주택 관리에 매년 41억여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의 운영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면서, 입주민의 소외감을 덜어 주고자 무료건강검진, 이·미용실 운영, 한방치료, 법률상담, 장애인 돌봄이 등 각종 시책을 사회공동체와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택사업은 입지에서부터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는다. 님비현상 때문이다. 저소득층 공동주택의 입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역주민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사업의 장기간 표류와 주거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택사업은 물리적 문제해결의 주거복지 방법이었으나, 앞으로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사업은 입지하는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없애고 지역주민과의 참여를 통한 주거복지활동으로 바뀌는 인간중심적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의 대안으로 먼저 소셜믹스(Soical Mix)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분양과 임대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에 섞어 짓는 것이다. 저소득층만 모여 사는 곳이 슬럼가로 몰락해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통합 차원에서 경제·사회 수준이 다른 계층이 한데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미 서울시는 몇 개 단지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물리적으로 혼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의 부작용도 따르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한 동을 지으면서 서로 다른 평수의 세대를 혼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양과 임대주택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으로 서로의 소외감과 편 가르기가 시작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을 위한 입주민간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적 관심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이 문제점도 해결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만 참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되어야할 시기라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서 70년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주택(Local Authority Housing)이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는 민영화 정책으로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이 공급하는 사회적 임대인 주택(Registerd Social Landlords Housing : RSL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민간 건설사들도 공공임대에 관심을 갖고 수익금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들이 이뤄진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보금자리 갈등해소는 물론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기왕에 광주역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광주시가 일단 광주역을 존치하기로 결론을 냈다. 광주역 존치 문제는 지난 4월 호남선 KTX의 광주역 진입이 무산되면서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지역 최대 현안이 됐다. 시는 그동안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광주역 활용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역 폐쇄와 존치를 놓고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북구 및 동구 일부 주민들은 각기 입장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해 왔다. 따라서 결론을 내기까지 시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광주역 존치 논리와 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광주역·철길 시민 환원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역을 폐쇄하고 대신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원이나 대규모 복합시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거점 개발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시가 광주역 존치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시민들에게 노선 선택 폭을 확대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존치 논리에 따른 결과물로 광주시는 'KTX가 끊긴 광주역'에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KTX 노선을 끌어오겠다고 제시했다. 광주역 존치 찬반론자 모두 광주역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제 광주시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수서발KTX의 광주역 진입에 역량을 다 모아야 한다. 지난번 호남선KTX 노선 결정 당시 서대전역 경유 반대에만 집중하다 광주역의 KTX 노선을 잃었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전은 벌써부터 수서발 KTX 노선 확보에 나선 모양이다. 필요하다면 관광객의 광주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전과 연계해 서대전역과 광주역을 동시에 들르는 노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남 지역 화재·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다니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 같다. 세월호 침몰이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의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참담한 심경으로 확인해야 했다. 사고 직후 여기저기에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결코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요즘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 문제에 무척 민감하다. 화재나 교통사고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이 전국 9개도 가운데 화재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전남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주 북구와 완도가 화재 분야에서 최하 등급으로 평가됐고, 광주 동구와 나주·보성·영암이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이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불안전한 곳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우선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를 꼽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전남은 차량 1만 대당 사망률이 3.6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화재에 취약한 농산어촌이 산재해 있는 데다 섬·오지 등 교통 및 화재 취약지가 다수 분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도 고질병이다.

지자체는 이번에 조사된 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소방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안전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한편 정주의식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구를 늘려야 하는 광주·전남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팔각정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흔히 들르는 곳이 있다. 홍콩 빅토리아 피크, 도쿄 타워 등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도심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두 달 전쯤 양림동에 놀러갔다가 한 곳을 발견했다. 사직공원 옛 팔각정 자리에 위치한 사직타워다.

광주 토박이들은 사직공원에 얽힌 추억 하나쯤 가지고 있다. 물놀이하던 공원 내 수영장, 동물원, 거대한 회전식 놀이기구…. 그중 1973년에 세워진 팔각정은 사직공원 나들이를 했다면 반드시 인증 사진을 찍던 단골 장소였다.

팔각정은 지난 2012년 철거됐다.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주변 나무들이 자라면서 전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후 높이 13.7m의 사직타워가 완공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먼저 다녀온 이가 한번쯤 올라가 볼 만하다고 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았다. 공사 중일 때 우연히 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타워가 영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전망대에 내렸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였을까. 일행들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첫마디는 '우와'였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려다본 광주 도심의 야경은 꽤 볼만했다.

타워의 규모·높이·야경의 화려함 등에선 다른 곳에 비해 초라할지 모른다. 하지만 탁 트인 공간에서 내려다본 아기자기한 광주의 야경과 상쾌한 바람은 기분을 '업'시키기에 충분했다. 일부러 타워만을 보기 위해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 다행히 인근에 양림동 등 산책하기 좋은 곳이 많으니 한번쯤 들러볼 만하다.

또 하나의 팔각정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3층 규모의 광주 중외공원 팔각정이다. 지난 1981년 중외공원 준공과 함께 만들어진 팔각정은 공원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전망대와 시민 쉼터로 사용됐었다. 이후 광주시립미술관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 '팔각정 스튜디오'로 제공하다 최근 방치돼 왔었다. 미술관 측은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사직타워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사직공원을 산책하다 양림동을 구경하다, 꼭 한번 올라가 보시라.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